

한국어 ‘-아 / 어서’에 대한 교수 방안

李熙卿

1. 서론

한국어 학습자의 문법적 오류에는 조사·연결어미·시제·높임법·어순 등의 오류를 들 수 있다. 그 중에서 연결어미에 대한 오류는 초급·중급·고급 단계 학습자 모두에게 대체적으로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다. 특히, 한국어를 학습하는 일본어 모어 학습자에게서 나타나는 문법적 오류 중에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것이 연결어미 ‘-아/어서’에 대한 오류라고 할 수 있다.

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어의 연결어미 ‘-아/어서’와 일본어의 접속조사 ‘-て’에 대한 한국어와 일본어 각 언어에서 이루어진 선행 연구를 검토해 보고,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에게서 빈번히 나타나는 ‘-아/어서’의 오류에 대해, 의사소통 능력 중심의 언어 교수법(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)을 토대로 한 ‘-아/어서’에 대한 교수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에게 보다 더 효율적으로 교수하여 학습자의 학습 효과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.

2. 일본어 모어 학습자의 오류 빈도

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초급 단계 학습자의 연결어미에 대한 사용 빈도와 오류

¹ 이정희(2003 :151) 『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연구』 참조

빈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. ¹ 아래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‘-고’에 대한 사용 빈도와 오류 빈도가 가장 높으며, ‘-고’ 다음으로 ‘-아/어서’에 대한 사용 빈도와 오류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.

	사용 빈도	오류 빈도
-거나	13	
-게		1
-고	250	22
-길래		
-(으)ㄴ/는데	35	1
-(으)ㄴ/는지	1	
-(으)니까	40	2
-다가	4	2
-아/어도	12	1
-든지	4	
-(으)러	22	4
-(으)려고	9	
-(으)면	62	4
-(으)면서	62	2
-아/어	34	4
-아/어서	174	23
-이/어야	12	
-자마자	1	
-지	63	
-지만	70	5
소계	868	71

3. 작문 오류의 예

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의 ‘-아/어서’에 대한 오류의 유형으로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. 첫째로 ‘-고’의 의미 용법을 ‘-아/어서’로 오용한 경우, 둘째로 ‘-아/어서’의 의미 용법을 ‘-고’로 오용한 경우, 그리고 셋째로 ‘-아/어서’의 의미 용법의 상황에서 ‘-고’가 아닌 다른 형태의 연결어미를 사용하는 경우이다. 이와 같은 일본어의 ‘-て’에 해당되는 ‘-고’와 ‘-아/어서’의 오류에 대해 이수경(1996)에서는 그 쓰임의 구별이 어려워 상당한 수준에 달한 학습자들에게서도 찾아 볼 수 있으며,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문형 연습 등의 예문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귀납적인 이해를 기대하는 방법밖에 없는 실정이라 했다. 이처럼 ‘-아/어서’의 오류는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초급 학습자뿐만 아니라 중급 이상 학습자의 문제이기도 하다. 다음은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의 오류의 예²를 살펴본 것이다.

3.1. ‘-고’의 의미 상황에서 ‘-아/어서’로 오용한 경우

- (1) 집 옆에는 차고가 있어서 그리고 차가 2대가 있습니다.
- (2) 누나는 교토에 시집가서 저는 한국에 살아서 만날 기회가 없다.
- (3) 젊은 남자와 여자가 30분 후에 다시 만나자고 이야기해서 남자는 남자 화장품점에 가서 여자는 여자 화장품점에 갔다.
- (4) (집에서) 가까운 역은 이촌 역인데 지하철을 타서 20분쯤밖에 걸리지 않습니다.
- (5) 버스를 타서 친구 집에 갔다.
- (6) 시골 학교 중에는 선생님이 한 명, 학생이 한 명밖에 없는 학교나 버스를 한 시간이나 타서 학교에 가야 하는 학생도 있다.

²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의 오류 예는 과제 작문이나 쓰기 시험 작문 등에서 나타난 것을 수집한 것으로 교사의 오류수정이 행해지지 않은 상태이다.

(1)부터 (3)의 오류의 예는 나열의 의미를 나타내는 ‘-고’의 의미 영역에서 잘못 사용한 예이며, (4)에서 (6)까지는 ‘타다’나 ‘입다’ 동사 등의 경우에 자주 나타나는 오류의 예이다. 이 경우 ‘타다’나 ‘입다’ 동사는 순차적인 의미를 나타낼 경우 ‘타고’, ‘입고’로 사용해야 되며, ‘타서’, ‘입어서’와 같이 ‘-아/어서’의 형태를 취하게 되면 ‘이유·원인’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을 제시 단계에서 학습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. ‘타다’의 경우는 김수정(2003:114)에서 제시한 것처럼 초급 단계 학습자에게는 ‘-고 가다/오다’와 같은 특정 용언과 연어 관계를 가지고 있는 형태를 부분적으로 제시³ 하는 것도 학습자의 오류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.

3.2. ‘-아/어서’의 의미 상황에서 ‘-고’로 오용한 경우

- (7) 누나는 저와 다르고 명랑한 성격이고 학생 때 운동도 잘하셨다.
- (8) 대형쇼핑매장은 싸고 좋은 물건이 진열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.
- (9) 버스가 없어고 자전거로 갔습니다.
- (10) 그런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났습니다. 놀라고 뒤를 돌아다보니까 누군가가 불꽃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.
- (11) 유명한 곳만 고르고 갈 수 있어서 나이가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경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.
- (12) 후쿠오카에서는 보통 젓가락을 쓰고 먹지만 한국에서는 숟가락을 쓰고 먹습니다.

³ 김수정(2003:114)에서는 ‘일어나다, 나가다, 내리다, 건너다, 앉다, 서다, 눕다, 사다, 가다’ 등의 선행 용언은 이들 용언과의 연어 관계를 특정 사례만 중심으로 초급 단계에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여, 시간 관계의 ‘-아/어서’의 예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.

-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했다.
- 밖에 나가서 운동을 했다.
- 앉아서 이야기를 하세요.
- 길을 건너서 왼쪽으로 가세요.
- 친구를 만나서 극장에 갔어요.

- (13)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이가 좋아집니다. 또 같이 나가고 식사를 합니다.
- (14) 요전에는 아주 작은 고양이를 줄고 왔습니다.
- (15) 남편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여자 변호사가 힘을 합하고 씩씩하게 승리를 얻으려고 하는 모습은 남성중심 사회에 시달리는 많은 여성들에게 용기를 준다.
- (16) 그것은 원래 일본 씨름을 하는 씨름꾼들이 만들고 먹는 요리였다.
- (17) '쥘리'가 개봉되자마자 화제가 되고 각광을 받고 관련상품(책, CD 등)도 많이 나오고 텔레비전에서도 특집 프로들이 방송됐다.

이러한 '-아/어서'와 '-고'에 대한 오류에 대해 이정희(2003)에서는 순차의 '-아/어서'와 '-고'의 혼란으로 인한 것이라 했다. 대체적으로 순차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'-아/어서'에 대한 오류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, 원인의 '-아/어서'의 의미 상황에서 다른 형태의 연결어미를 사용하는 예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.

3.3. '-아/어서'의 의미 상황에서 그 외의 다른 형태로 오용한 경우

- (18) 각종요금을 늦게 냈는데 항상 연체료를 내야 하네요.
→ 내서
- (19) 수업 중에 줄고 있었는데 제 공책에 쓰지 않았어요.
→ 줄아서
- (20) 그 아저씨는 일본말을 잘하셨으니까 더 재미있습니다.
→ 잘하셔서
- (21) 우리 부부하고 모른 남자들과 같이 (골프를) 했는데 그 남자들이 친절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였으니까 아주 재미있었어요.
→ 사람들이라서
- (22) 어쨌든 산소라는 존재는 작지만 이 세상에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좋은 이미 지로 다행이었다.
→ 이미지라서

4. 선행 연구 검토

4.1. 국어학에서의 연결어미 ‘-아/어서’에 대한 기술

이상복(1978)은 ‘-아/어서’의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각각의 통사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.

원인·이유: 배가 안파서 학교에 안 갔다.

행위 연속: 영희가 편지를 써서 부쳤다.

때(시간): (밥이) 따뜻해서 잡수세요.

원인·이유의 ‘-아/어서’ :

- 선·후행절의 주어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.
- 선·후행절 서술어의 종류에 제약이 없다.
- ‘-았/었’은 선행할 수 없지만 ‘-겠’은 선행할 수 있다.

행위 연속의 ‘-아/어서’ :

- 선·후행절의 주어가 반드시 동일해야 한다.
- 선·후행절의 서술어가 반드시 동사이어야만 한다.
- ‘-았/었’, ‘-겠’ 모두 선행할 수 없다.

때(시간)의 ‘-아/어서’ :

- 선·후행절의 주어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.
- 선행절의 서술어는 동사·형용사가 쓰이지만 후행절에는 제약이 없다.
- ‘-았/었’, ‘-겠’ 모두 선행할 수 없다.

남기심·루코프(1983)에서는 '-아/어서'의 문장 구조를 본질적으로 '상관적 계기성(related sequence)' 즉, 'A 다음에 그와 어떤 상관성을 가지고, B가 뒤따르는 것'을 나타내며 논리적인 형식으로는 '원인 밝힘(assertion of cause)'이라 했다.

이종덕(1993)에서는 '-아/어서'의 의미에 대해 '계기(繼起)', '방법', '때', '원인', '이유'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.

이를 바탕으로 '-아/어서'에 대한 기본 의미를 정리하면, 용어에 대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, '원인·이유', '행위 연속·계기', '때', '방법'으로 나눌 수 있다.

4.2. 일본어학에서의 접속조사 '-て'에 대한 기술

일본어 접속조사 '-て'의 의미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리타(森田1980: 752-757)는 '-て'의 의미에 대해 다음의 여덟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.

① 병렬

:今日は学校へ行って、デパートへ行って、それから図書館へも行きました。

② 대비

:日本海側は雪が降っていて、太平洋側は晴れています。

③ 동시 진행

:飛行機が煙を吐いて墜落した。

④ 순서

:彼は立ち上がって、外出の支度を始めた。

⑤ 원인·이유

:五百メートル走って疲れた。

⑥ 수단·방법

:テープを聞いて練習します。

⑦ 역접

: 彼はそのことを知っていて言わない。

⑧ 결과

: 彼が参加して五人になる。

모리타(森田1980)는 일본어의 ‘-て’가 원인·이유를 나타낼 경우, 후행절에 의지, 명령, 의뢰, 허가, 금지 등의 표현과 연결되지 않는 구문론적 제약⁴을 제시했다. 그런데 이 경우 한국어에서는 원인·이유를 나타낼 때 구문론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는 ‘-아/어서’가 아닌 따짐⁵을 나타내는 ‘-(으)니까’의 구문론적 제약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.

이에 대해 나리타(成田1983)는 다음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.

① 계기적 ② 원인·이유 ③ 병렬적 ④ 부사적 의미

그 중에서도 특히 부사적인 의미 용법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면서 양태동사(樣態動詞)⁶는 일반적으로 부사적인 용법으로 사용된다고 했다.

일본어의 ‘-て’에 대한 통사론적 제약에 대해 다카하시(高橋1983)는 ‘-て’ 앞에는 화자의 심적태도(mood)⁷나 시제(tense)를 나타낼 수 없지만, 그 의미는 후행절에 나타나는 서법이나 시제와 같은 형태를 취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했다.

⁴ * 用事があつて早く帰りなさい。(명령)

* 寒くて窓を閉めてください。(의뢰)

* 暗くてもう帰りましょう。(청유)

⁵ 남기심·루코프(1983)에서 A니까 B는 논리적 형식으로 ‘따짐(argumentation)’을 나타낸다고 했다.

⁶ 여기서 말하는 양태동사란 나리타(1983)에서 제시한 자세를 나타내는 동사(立つ、座る、寝る、横になる 등)와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를 말하고 있다.

⁷ ‘mood’에 대해서는 국립국어연구소에서 간행된 『日本語の文法(上)』 p.97의 심리태도라 규정해 놓은 것을 따랐다.

・わたしは2時に行って、5時に帰ろう。

・おまえは2時に行って、5時に帰れ。

・太郎が行って、花子が帰った。

다음으로 한국어의 '-고'와 '-아/어서' 일본어의 '-て'의 의미 용법을 대조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오고시(生越1987)는 '-て'의 의미 용법에 대해 모리타(森田1980)의 여덟 가지 의미 분류를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나누었으며, 한국어의 '-고'와 '-아/어서'의 대응 관계에 대해서도 기술했다.

의미	대응 관계
① 병렬·대비 ② 계기(순서) ③ 상황(동시 진행) ④ 인과 관계 (원인·이유, 결과, 수단·방법) ⑤ 역접	① 병렬·대비의 '-て' → '-고' ② 계기·상황의 '-て' → '-고' '-아/어서'에 모두 대응될 수 있음 ③ 인과 관계의 '-て' → '-아/어서' ④ 역접의 '-て' → '-고' '-아/어서' 이외의 형태 '-(으)면서도'

위의 대응 관계를 표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.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습자의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계기·상황의 의미로 사용되는 '-て'가 '-고'와 '-아/어서' 두 가지 형태로 대응된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. 이렇게 '-고'와 '-아/어서'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'-て'의 의미에 대해 학습자가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하게 되는 것이다.

의미	'-て'	'-고' / '-아/어서'	다른 형태
병렬·대비	'-て'	'-고'	
인과 관계	'-て'	'-아/어서'	
계기·상황	'-て'	'-고' , '-아/어서'	
역접	'-て'		'-(으)면서도'

4.3. 한국어 교육적 차원에서의 ‘-아/어서’에 대한 기술

김수정(2003:37)에서 제시한 국립국어연구원(2002)의 한국어표준문법시안의 연결어미에 대한 의미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

나열		-고, -으며
대조		-나, -지만
선택		-거나, -든지
시간	동시성	-으면서, -는 동안, -을 때
	계기성	-고(서), -자, -자마자, -아서
인과		-아서, -으니, -으니까, -으므로, -으때, -느라고, -은지라, -기에, -기 때문에, -는 바람에
양보		-아도, -더라도, -은들, -을지라도, -을망정
조건		-으면, -아야, -거든, -왔던들
배경		-으니, -으니까, -는데, -은즉, -은바를
목적		-으러, -으려, -으려고, -고자, -게, -도록

국립국어연구원(2002)에서 제시한 위의 표에 따르면 ‘-아/어서’의 의미로는 ‘시간 관계의 계기성’과 ‘인과 관계’로 분류하고 있다.

한국어 교육 문법서인 임호빈·홍경표·장숙인(1997)의 『신개정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』와 백봉자(2001)의 『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사전』에서 제시하는 ‘-아/어서’의 의미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.

1. 임호빈·홍경표·장숙인(1997). 『신개정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』

- (1) 선행문이 후행문의 이유나 원인이 된다. 이때 선행문의 동사에는 '-었(았, 였)'이나 '-겠'이 나타날 수 없고, 후행문의 종결어미에 명령형이나 청유형은 쓰이지 않는다.
- (2) 선행문의 동작이 후행문의 동작에 순차적으로 앞선다. 선행문의 동작이 완료된 후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후행문의 동작을 행한다는 뜻이다. 그러므로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는 동사만 올 수 있다. 이때 선행문에는 동작 동사가 쓰이며, 후행문의 종결어미에는 제약이 없다.

2. 백봉자(2001). 『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사전』

- (1) 선행절이 후행절의 원인이 되는 경우
- (2) 선행절이 후행절의 조건이 되면서 시간적인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

이 두 가지의 한국어 교육 문법서에 제시되어 있는 '-아/어서'의 의미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.

	『신개정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』	『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사전』
-아/어서	① 이유·원인 ② 순차적 동작이며 지속적	① 원인 ② 시간적 순서

5. 의사소통 능력 중심 교수법에서의 ‘-아/어서’에 대한 교수 모형

위와 같이 『신개정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』와 『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사전』에서 의미 분류한 ‘-아/어서’의 ‘순차적 동작이며 지속적’인 의미와 ‘시간적 순서’의 두 가지 의미 분류 만으로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에게 그 의미 용법을 정확하게 이해시키기에는 미흡하다고 보며, 이러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실제적인 담화 상황에 접했을 때 ‘-고’ 등과 같은 다른 연결어미와 혼동하는 오류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. 따라서 본고에서는 본고의 목적인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의 오류를 줄이고, 보다 더 효과적으로 교수하기 위해서는 ‘시간적 순서’의 의미를 ‘방법’의 의미와 ‘시간적 순서’ 등으로 좀더 세분화하고, 적절한 담화 상황 안에서 의사소통 능력 중심으로 교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. ‘-아/어서’의 좀더 세분화된 의미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과서 중의 하나인 노마(野間2003)의 『지복의 조선어(至福の朝鮮語)』에서 제시한 ‘동작의 선행’, ‘원인’, ‘양태’를 들 수 있다. 이것은 앞서 제시한 나리타(1983)의 자세를 나타내는 ‘서다(立つ), 앉다(座る), 눕다(横になる)’ 등의 동사와 연결되는 ‘-て’에 대해 의미 분류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.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‘시간적 순서’의 의미를 좀더 세분화시켜야 한다고 본다.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‘-아/어서’에 대한 의미 중에서 ‘이유·원인’의 의미와 ‘시간적 순서’에 대한 의미를 좀더 세분화한 것 중의 하나인 ‘방법’⁸의 의미를 중심으로 교수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.

⁸ 본고에서는 ‘-아/어서’의 ‘시간적 순서’를 좀더 세분화해서 ‘시간적 순서’의 의미 외에 ‘어떻게?’와 연결되는 ‘-아/어서’의 의미에 대해 이종덕(1993)에서 제시한 바 있는 ‘방법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겠다. 하지만, 한국어 교육 면에서의 용어의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좀더 논의 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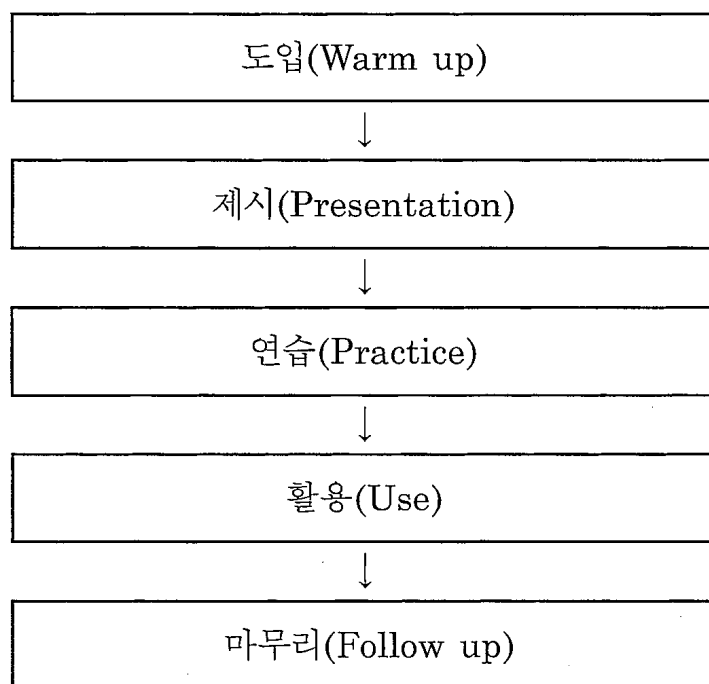
교수 목표	연결어미 '-아/어서' 의 '이유·원인'과 '방법'에 대한 교수를 통해 일본어 모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켜 정확하고 유창하게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
교수 대상	중급 저 (Low Intermediate)

주제 (Topic)	여행
기능 (Function)	· 정보 구하기 · 정보 주기

문법 구조 (Grammar and Structure)	· -아/어서(이유·원인) · -아/어서(방법)
준비 학습 (Activity Learning)	· 한국의 여행지
과제 학습 (Task Learning)	· 한국에서의 여름 휴가지에 대한 정보 구하기/주기 · 여름 휴가지 추천해 주기

5.1. 수업 전개

수업의 실제적인 모형은 다음의 다섯 단계에 따라 전개해 나가려고 한다.



이러한 수업 전개 단계에 따라 ‘이유·원인’의 ‘-아/어서’와 ‘방법’의 ‘-아/어서’에 대한 수업 전개 방식을 제시한 것이 다음 표이다. ‘-아/어서’의 ‘원인·이유’의 의미와 ‘방법’의 의미 각각에 대한 문법 항목을 개별적으로 도입하고 제시하여 연습한 후, 두 가지 문법 항목을 통합한 과제 학습 단계에서의 활용을 거쳐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게 된다.

‘이유·원인’의 ‘-아/어서’	‘방법’의 ‘-아/어서’
도입(Warm up)	도입(Warm up)
제시(Presentation)	제시(Presentation)
연습(Practice)	연습(Practice)
활용(Use)	
마무리(Follow up)	

(1) 도입(Warm up)

여행이라는 주제로 학습자를 유도하기 위해 [자료 1]을 보면서 여행 경험과 방학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 학습자에게 자신의 여행 경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교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. 이 경우에는 한국의 지리 및 설악산이나 경주 같은 유명한 관광지에 대해 소개할 수 있게 되어 문화적인 학습 효과도 얻게 된다.

- 여러분은 여행을 많이 했습니까?
- 방학 때 한국 여행을 한다면 어디에 가고 싶습니까?
- 왜 거기에 가고 싶습니까?

(2) 제시(Presentation)

① 이유·원인의 '-아/어서'에 대한 제시

도입에서 질문한 것에 대해 학습자들의 대답을 들어 본다.

교사: 여러분은 방학 때 산에 가고 싶습니까? 바다에 가고 싶습니까?

학생: 바다에 가고 싶습니다.

교사: 왜 바다에 가고 싶습니까?

학생: 너무 더워요. 그래서 바다에서 수영하고 싶어요.

그리고 나서 교사는 '-아/어서'를 사용한 문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.

교사: ○○씨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바다에서 수영을 할 겁니다.

이와 같은 형태로 몇 번 더 반복한 후에 문법적인 특징을 제시한다. 또한 동작동

사, 상태동사 등의 연결형 및 과거형이 연결되지 않는 것에 대한 제시를 한다.

② 방법의 ‘-아/어서’에 대한 제시

여행지에서 음식은 보통 어떻게 하는지 학습자에게 물어 본다.

교사: 여러분은 여행을 가면 음식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? 사서 먹습니까? 만들
어서 먹습니까?

학생: 사서 먹습니다.

교사: 그러면 물은 어떻게 합니까? 사서 마십니까? 끓여서 마십니까?

학생: 사서 마십니다.

그리고 집에서 보통 텔레비전을 어떻게 봅니까? 소파에 앉아서 봅니까? 누워서
봅니까? 등의 질문을 통해 ‘방법’의 의미로 사용되는 ‘-아/어서’를 제시한다.

(3) 연습(Practice)

제시 단계에서 ‘이유·원인’의 의미에 대한 제시가 끝나게 되면 [자료 2]와 [자료 3]의 준비 학습 단계 자료로 짝 활동(Pair work)을 하여 그 결과를 학습자가 부교재에 직접 기입하게 한다. 마찬가지로 제시 단계에서 ‘방법’의 의미로 사용되는 ‘-아/어서’의 제시가 끝나게 되면 준비 단계 자료인 [자료 4]의 <연습 1>과 <연습 2>를 통해서 학습자 간의 짝 활동을 하게 한다.

(4) 활용(Use)

준비 단계의 학습이 끝나면 [자료 5]와 같은 확장 상황을 주고 개별적으로 연습했던 ‘-아/어서’의 ‘이유·원인’과 ‘방법’의 의미를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과제 학습(Task Learning)활동을 하게 된다. 이때 학습자에게 [자료 6]의 부교재에 활

동의 결과를 기입하게 함으로써 실제로 정보를 주고 받도록 한다. 이 활동도 마찬가지로 짝 활동(Pair work)으로 이루어진다. 이같은 <말하기>활용 이외에도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라 있는 여행 경험 글을 읽은 후에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얻게 하는 <읽기>나 한국에서의 여행 경험에 대한 편지를 친구에게 쓰게 하는 <쓰기> 활용으로 연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.

(5) 마무리(Follow up)

학습자의 최종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해 학습자에게 질문을 하여 학습 정도를 확인한 후 수업을 마무리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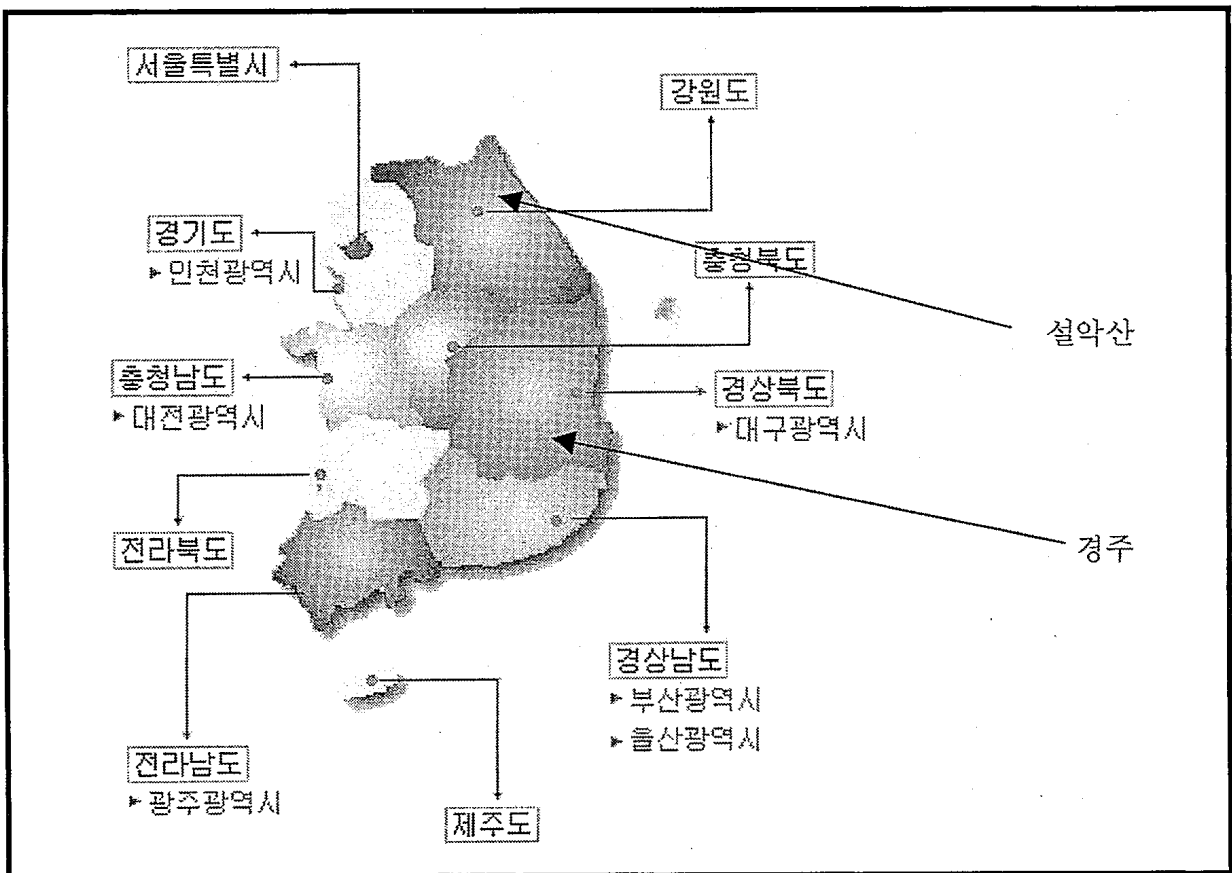
5.2. 수업 자료

[자료 1] 준비 학습(Activity Learning)

한국에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. 그런데 적당한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. 한국 친구에게 어디가 좋은지 왜 좋은지에 대한 이유를 물으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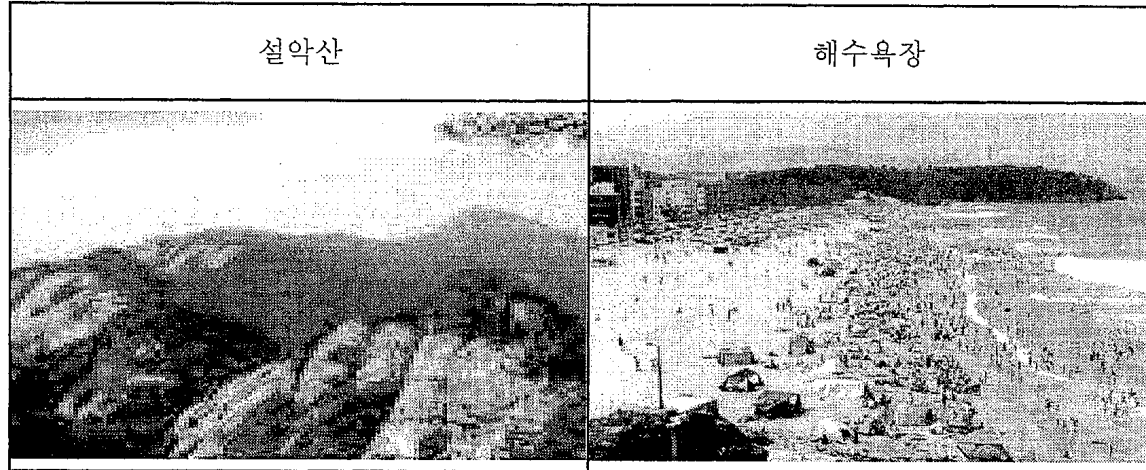
1. 동해안(설악산) · 경주 · 제주도는 어디에 있습니까?
2. 여러분은 어디에 가 봤습니까?

동해안(설악산), 경주, 제주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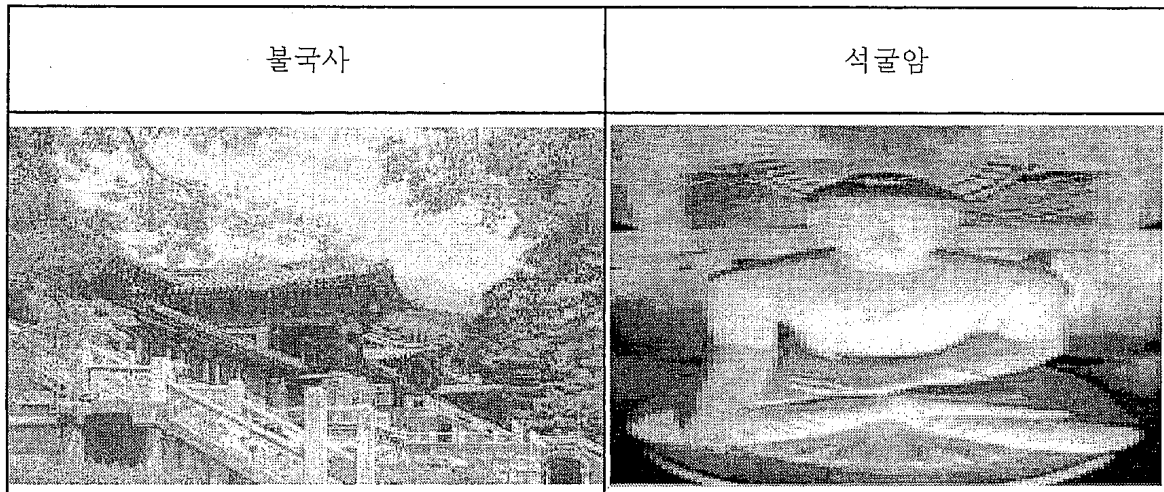


[자료 2] 준비 학습(Activity Learning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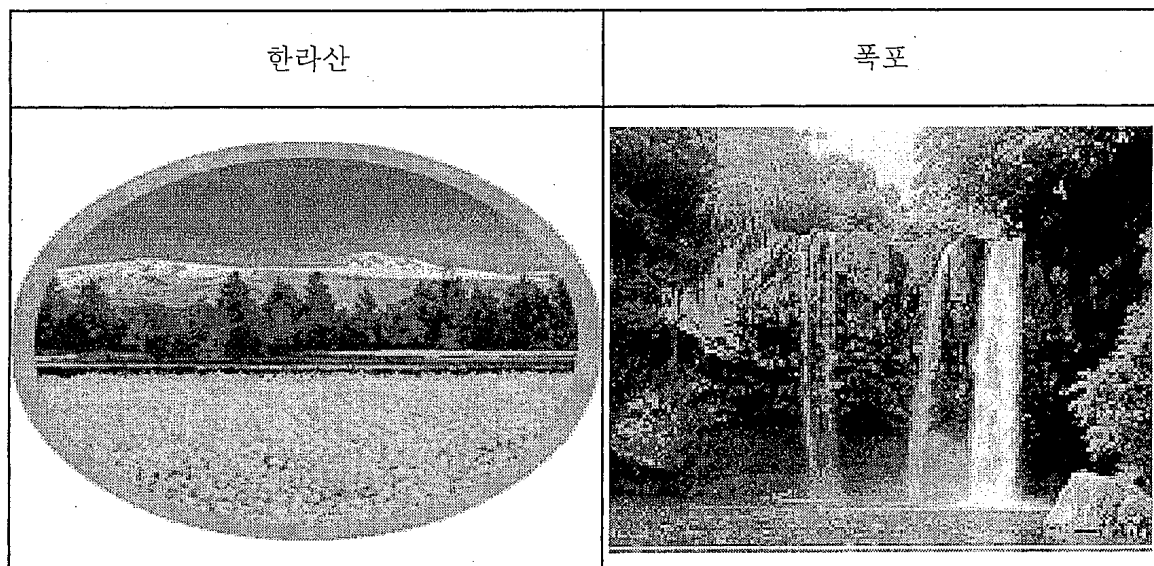
동해안(설악산)



경주



제주도



[자료 3] 준비 학습(Activity Learning)

여러분은 여름 방학에 어디에 가고 싶습니까? 왜 거기에 가고 싶습니까? 친구들과 여행 장소로 좋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.

사토: 민호씨, 이번 여름 휴가에 한국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보통 어디로 많이 가요?

민호: 보통 동해안으로 많이 가요.

사토: 왜요?

민호: 동해안에는 산도 있고 해수욕장도 많아서 수영할 수도 있어요. 공기도 깨끗하고 경치도 좋아요. 또 바닷가 식당에서 신선하고 맛있는 회도 먹을 수 있어요. 사토씨, 이번 여름 휴가는 동해안으로 가 보세요.

사토: 네, 좋아요.

장소	좋은 이유
동해안 (설악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산도 있고 해수욕장도 많다 · 수영할 수도 있다 · 공기가 깨끗하다 · 경치가 좋다 · 신선한 회를 먹을 수 있다
경주	
제주도	

[자료 4] 준비 학습(Activity Learning)

<연습 1> 여러분은 여행을 가서 음식은 어떻게 할 겁니까? 사서 먹을 겁니까? 만들어서 먹을 겁니까? 친구들과 여행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.

민호: 음식은 어떻게 할 겁니까? 사서 먹을 겁니까? 만들어서 먹을 겁니까?
사토: 만들어서 먹읍시다.
민호: 그러면 물은 어떻게 할 겁니까?
사토: 사서 마십시다.

	방법
아침/먹다	만들다/사다
점심/먹다	만들다/사다
저녁/먹다	만들다/사다
물/마시다	생수를 사다/끓이다

<연습 2> 여러분은 다음의 일들을 보통 어떻게 합니까? 친구들에게 물어 보십시오.

하는 일	앉다	눕다	서다
텔레비전을 보다			
전화를 하다			
책을 읽다			
다림질을 하다			
하루 일을 생각하다			

민호: 저녁에 텔레비전을 볼 때 보통 앉아서 봐요? 아니면 누워서 봐요?
사토: 저는 매일 집에 늦게 들어가서 너무 피곤해요. 그래서 보통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봐요.

[자료 5] 과제 학습(Task Learning)

여름 휴가 여행지 정보 구하기/정보 주기

사람 1: 한국에서 여름 휴가에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. 한국 친구에게 여행하기에 적당한 곳과 그곳의 교통편 및 숙박에 대한 정보를 구하십시오.

사람 2: 친구가 적당한 여름 휴가지에 대해 묻습니다. 적당한 곳을 소개해 주고 그곳이 좋은 이유를 말하면서 추천해 주십시오.

사토: 민호씨, 이번 여름 휴가에 한국에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보통 어디로 많이 가요?

민호: 보통 동해안으로 많이 가요.

사토: 왜요?

민호: 동해안에는 산도 있고 해수욕장도 많아서 수영도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공기도 깨끗하고 경치도 좋아요. 또 바닷가 식당에서 신선하고 맛있는 회도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.

사토: 그런데 동해안까지는 어떻게 가요?

민호: 차로 갈 수도 있고 고속 버스나 비행기로도 갈 수 있어요.

사토: 어떻게 가는 게 제일 좋아요?

민호: 휴가철에 길이 많이 막혀서 차로 운전해서 가면 많이 힘들 거예요.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가려면 고속 버스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

사토: 그래요. 그런데 어디에서 묵는 게 좋을까요?

민호: 글썄요. 콘도, 여관, 민박도 많이 있어요. 콘도에서 묵으면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. 그런데 처음 가는 사람은 호텔에 묵는 게 좋을 거예요.

사토: 민호씨, 도움이 많이 됐어요. 고마워요.

민호: 별 말씀을요.

[자료 6] 과제 학습(Task Learning) 학습자 간 짝 활동 자료

	동해안(설악산)	경주	제주도
추천하는 이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산도 있고 해수욕장도 많다 · 공기가 깨끗하다 · 경치가 좋다 · 신선한 회를 먹을 수 있다 		
교통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자동차: 길이 많이 막히다 · 고속 버스: 편하다, 경치를 구경할 수 있다 		
숙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호텔: · 콘도: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먹을 수 있다 · 여관: · 민박: 		

6. 결론

이상으로 한국어와 일본어의 연결어미 ‘-아/어서’와 ‘-て’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그 의미와 통사론적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 보고, 그에 따른 한국어 교육에서의 ‘이유·원인’의 의미와 ‘방법’의 의미에 대한 의사소통 능력 중심의 교수 모형을 제시해 보았다.

‘-아/어서’는 특별히 일본인 화자들이 혼동하여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교사가 인식하여 교수 초기의 학습자 인지 단계에서 학습자들에게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키면서 수업에 임해야 할 것이다.

끝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의 오류 작문을 통한 오류의 경향과 정확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어의 ‘-て’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에서 ‘-아/어서’ 이외의 다른 연결어미 ‘-(으)면서’, ‘-(으)ㄴ/는데’ 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향후의 과제로 하고 싶다.

참고문헌

- 김수정. 2003. 한국어 문법 교육을 위한 연결 어미 연구.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.
- 남기심. 1980. 연결어미 ‘고’에 의한 접속문에 대하여. 제1회 한국학 국제학술회의 논문집.
한국정신문화연구원.
- 남기심·루코프. 1983. 논리적 형식으로서의 ‘-니까’ 구문과 ‘-어서’ 구문. 국어의 통사·의미론.
고영근·남기심 공편. 탑출판사.
- 남기심. 1994. 국어 연결어미의 쓰임. 서광학술자료사.
- 남영복. 1989. 日本語の ‘-テ’ と 韓国語의 ‘-고’, ‘-어서’ 의 対照考察-日本語의 ‘-テ’ を 中心として-. 大邱大人文 科学研究 7.
- 백봉자. 2001.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사전. 연세대학교 출판부.
- 유경화. 1999. 日本語의 ‘-テ’ 와 ‘-고’, ‘-어서’ 対照研究. 日語日文学研究第35輯.

- 이상복. 1978. 국어의 연결어미에 대하여 '-아서'를 중심으로-. 말 제3집.
- 이석주. 1983. 국어 용언어미 '-고'의 의미 분석. 한성대학 논문집.
- 이수경. 1996.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의 오용의 경향에 관하여. 한국어교육 제7권.
- 이익섭·채완. 2000. 국어문법론강의. 학연사.
- 이정희. 2003.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연구. 박이정.
- 이종덕. 1997. 연결어미 '-어서'의 의미. 전농어문연구 제9집.
- 이지영. 1998. 한국어 연결어미의 교수 모형: {-는데}. 한국어교육 제9권 2호.
- 이효정. 2001. 한국어 학습자의 담화에 나타난 연결어미 연구. 한국어교육 제12권 1호.
- 임호빈·홍경표·장숙인. 1997. 신개정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. 연세대학교 출판부.
- 정희정. 1990. 연결어미 '-고', '-아서'에 대하여. 연세어문학 22.
- 池尾スミ(1963)、「「て」(-te form)について-いわゆる理由を表わす接続形-」、『日本語教育3号』
日本語教育学会.
- 池尾スミ(1964)、「テのいろいろ」、『口語文法の問題点』講座現代語第6巻、明治書院.
- 生越直樹(1987)、「日本語の接続助詞「て」と朝鮮語の連結語尾{a}{ko}」、『日本語教育62号』、
日本語教育学会.
- 岡崎敏雄・岡崎眸(1998)、『日本語教育におけるコミュニケーション・アプローチ』、凡人社.
- 高橋太郎(1983)、「動詞の中止形(～シテ)とその転成をめぐって」、『動詞の研究』、むぎ書房.
- 成田徹男(1983)、「動詞の「て」形の副詞的用法-「様態動詞」を中心に-」、『副用語の研究』
渡辺実編、明治書院.
- 野間秀樹(2003)、『至福の朝鮮語』、朝日出版社.
- 益岡隆志・田窪行則(1990)、『基礎日本語文法』、くろしお出版.
- 南不二男(1993)、『現代日本語文法の輪郭』、大修館書店.
- 村岡貴子(1991)、「動詞の「て形」接続について」、『日本語教育論集』、学研.
- 森田良行(1980)、『基礎日本語2』、角川書店.

<한국어 교육 교과서 자료>

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. 1998. 『말이 트이는 한국어 I』.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.

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. 1999. 『말이 트이는 한국어 II』.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.

* 付記：本稿は平成15年度松山大学特別研究助成による研究成果である。